

모든 당뇨병인을 위한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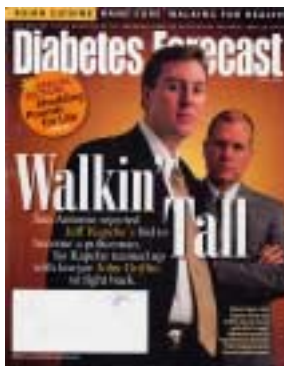
샌안토니오시는 제프 캡체에게 그가 인슐린을 사용하는 관계로 경찰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제프 캡체와 그의 변호사, 존 그리핀은 팀을 이루어 그 결정에 대항해서 싸웠다.

“당신은 대체 왜 경찰이 되려고 합니까? 월급도 적고 일은 위험한 일인데요.” 캡체는 의사가 그에게 했던 이 말을 기억한다. 그러한 의사의 발언은 캡체를 더욱 자극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의 꿈을 위해 싸우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경찰의 꿈을 향해

1994년에 샌안토니오는 경찰이 되기에 좋은 지역이었다. 텍사스의 그 어떤 도시의 경찰청보다 월급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혜택도 많이 주어졌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원했고 그에 경찰청에서는 정해진 월요일에 도착하는 200개의 지원서만 받기로 결정했다.

캡체는 경찰학교를 갓 졸업하고 학사 졸업장을 손에 들고 친구와 함께 휴스턴에서 샌안토니오로 운전해 월요일 아침에 지원서를 받았다.



출처: Diabetes Forecast

그는 SAT를 능가하는 수준의 필기시험을 치렀다. “그것은 내가 경험해본 것중

가장 어려운 법률집행 관련 시험이었어요.” 그는 말했다. 캡체는 그것을 통과한 60명의 지원자중 한 명이었다. 그는 또한 배경확인, 심장박동과 혈압확인, 육체적 능력확인 및 심리테스트까지 다 통과하였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의사는 그가 인슐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를 불합격시켰다. 운전은 경찰이란 직업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능인데 인슐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뇨에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인슐린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율은 일반인보다 결코 높지 않았다.)

캡체는 탈락된 사정을 샌디아고 경찰국과 소방국에 호소해 보았다. 그는 주정부 기관에서 추천해준 2명의 의사를 찾아가 개인부담으로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당뇨전문의가 아니었고, 그 누구도 캡체가 경찰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려주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캡체가 인슐린을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그 중 한 명은 오히려 캡체가 경찰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다.

캡체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내 외부 사람들에게 호소해보는 노력을 해보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그러한 호소를 할 수 없어졌다. 그는 기운 빠지게 만들던 한 의사의 말을 기억해 본다.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의과대학은 비싸니깐 의사가 되지 말라고 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캡체는 말했다. “난 1년이나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 지시에 따랐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결정할 일이 잘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설득시키려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 어떤 누구도 내가 겪어야 했던 과정을 겪지 않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캡체는 그의 아버지 론에게 연락을 해서 말했다. “나는 그들에 대항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미국당뇨협회(ADA)에 전화를 걸었다.

모두가 아닌, 혼자만의 승리

협회는 텍사스 내에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1993년, 달라스시와 쉐들러와의 법정대응이 있었다. 텍사스, 미시시피, 루이지아나는 모두 원고인 라일리 쉐들러의 편을 들어 단지 인슐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이 요구되는 특정업무를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뒤집었다.

다시 말해, 쉐들러의 경우는 시범 케이스였던 것이다. 시범 케이스란 판정을 내릴 때, “재판관님, 쉐들러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으므로, 당신 또한 이번도 같은 경우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년 후, 당뇨병을 가진 다른 사람의 케이스도 있었다. 제프 재콕은 처음으로 제 1형 당뇨병을 판정 받았을 때 이미 UPS에서 운전 배송요원으로 몇 년간을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그 후 UPS에서 2년을 더 운전 배송요원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그는 갑자기 그전에 받던 월급의 반도 안 되는 급여가 부여되는 내부 근무 비상

근 직으로 발령을 받았다. UPS에서는 그가 인슐린을 사용하므로 더 이상은 회사의 차를 운전하는 일은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프는 텍사스의 빅토리아에 있는 변호사인 존 그리핀을 찾아갔다. 그리핀은 이 사건을 맡았다. 그는 쉐들러의 경우 덕에 이 사건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쉐들러의 견해를 기록한 재판관 제큐즈 웨이너는 판결문에 “비록 우리는 사건별 제외사항이 잘 판단 될 수 있을 만큼 의학이 발달하여 모든 사건을 제대로 재판하기를 원하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이런 전반적인 금지행위는 언젠가는 불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핀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그의 사건을 뒷받침해줄 의사를 찾지 못했다. 미국당뇨협회는 그를 샌안토니오의 내과전문의이자 협회 상임이사의 역할을 맡고 있던 랄프 디프론조 박사와 연결해주었다. 디프론조박사는 재콕을 진찰하였으며, 그는 그가 해오던 일을 계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내렸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금지행위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은 각자의 능력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UPS의 변호사는 이것이 단지 쉐들러의 사건 통합판결이라고 하여 아예 법정에서의 판결 자체를 못하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했으나 그의 요구는 기각되었다. 또한 판사는 디프론조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UPS는 이 사건이 최종 판결에 이르기도 전에 합의를 보았고, 그 결과로

재콕은 운전이 필요 없는 더 높은 연봉의 좋은 자리로 승진, 배정 받았다.

이것은 재콕의 승리였지만 다른 당뇨병환자에게는 아니었다. UPS사가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지 않은 관계로 챌들러 이후의 승리의 사건은 없는 셈이었다. .

십지 않은 싸움

론 캡체가 그의 아들에 관해서 협회에 문의를 했을 때, 그는 미국당뇨협회의 전 회장이자 협회의 법정투쟁 노력을 시작한 장본인이인 미셸 그리네에게 연결되었다. 그는 재콕의 사건에 관해 자세하기 듣고 론 캡체에게 그리핀을 접촉하기를 제안하였다.

1995년, 그리핀은 텍사스의 서쪽지역 미국의 관할법정에 캡체를 대신하여 법정대응을 시작하였다. 미국당뇨협회는 아주 처음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었다. 디프로조박사와 협회의 전 회장인 에드워드씨 등의 의학전문가들도 합류하였다.

1997년 시정부는 요약된 판결문을 요구했다. 에드워드 프라도 판사는 요청을 받아들여 챌들러의 판정에 의한 법정배경을 기각했다. 캡체는 호소했다. 마이클 그리네는 협회를 대표하려 법정참고인을 내세웠다. 그것은 캡체와 같이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는 의학에 근거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이 연방법원까지 이르렀을 때, 3명의 판사의 판결을 받았다. 그 중 한명은 소견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되어있었다. 다행히도 그 것은 챌들러의 판결을 내렸

던 웨이너 판사에게 돌아갔다. 1999년 상고법원은 캡체의 편을 들어주었다. “당뇨협회에서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우리는 인슐린 사용자의 운전에 관한 위험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결론내린다.” 이 판결은 상고법정에서 그 밑의 법정에서는 이 사건을 기각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 사건은 다시 관할법정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 승리를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는 의학적 증거가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리핀을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의 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2000년 7월, 프라도 판사는 1994년, 시정부가 당뇨인에 관한 고용제한이 있었던 시기였음을 고려하여 캡체의 법정공방을 기각시켰다.

아마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저는 이미 그 일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고, 그것은 단지 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캡체는 말했다.

캡체는 다시 2번째 항소를 결정하였다. 이번에 그는 상고법정이 관할법정을 움직여서 이 법정공방에 필요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최근의 의학 증거와 조언을 통해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불공평한 일들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일이었다. 또한, 미국당뇨협회도 다시 한번 뛰어 들었다. 그들은 증빙자료와 준비된 논리로 법정공방을 거들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캡체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법무부에서는 법정참고인을 제공해주었다.

모든 당뇨인을 위한 승리

2002년 여름 캡체와 산안토니오 시정부의 7년간의 법정공방, 자그마치 2,000시간 이상의 변호사 시간을 사용한 이 공방은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고 진행됐다. 그리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가 진행하고 있는 공방의 승리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을까? “그럼요, 그랬지요.” 그리핀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2002년 8월에 바뀌었다. 상고법정에서는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4가지의 결정을 토대로 “캡체와 같은 개인은 SAPD경찰의 필수항목을 실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다시 이 사건을 관할법정으로 내려보냈다. 그것은 이 공방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결은 캡체뿐만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당뇨병 환자에게도 매우 큰 사건이다. 왜냐하면, 캡체리의 경우가 가장 최근의 당뇨직업인을 위한 판결이었지만, 그 판결로 인해 불공평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당뇨환자들을 그들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인술린 복용의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누군가가 법정

공방을 벌였을 때 뒷받침이 되는 법정배경이 없었다. 앞으로는 캡체리의 사건이 아닌 캡체의 사건을 법정 배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리핀은 말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비록 아직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는 밝아 보였다. “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금은 만족해 합니다” 그리핀은 말했다. “많은 좋은 지지가 있었고, 우리는 그 이슈의 바른 위치에 서있었습니다.” 그리핀은 현재 미국당뇨협회의 변호위원회의 부회장을 맡고있다.

모범적인 집행관이 되어

캡체는 그래서 법정 공방에서 승리를 하였나? 그러므로 그는 경찰이 되었나? 그 질문은 텍사스주의 육군기지 보안관 사무실에 물어보면 될 것이다. 그들은 1994년에 그를 채용했으며 캡체의 당뇨여부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곳에는 벌써 당뇨환자인 교도관들이 있었다.

9개월간의 교도관으로의 임무를 잘 수행한 캡체는 순찰 업무적으로 승진되었다. 그는 활발히 활동하여 그 지역사회를 잘 연결해나가는 일을 즐겼다.

“가출청소년을 집에 데려갑니다.” 그는 말했다. “그 가출청소년과 대화를 나누고, 그의 부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당신은 문제가 뭔지 알게됩니다. 이런 일들은 감정개입이 되어있지 않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끝납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 것이며 당신은 문제를 해결한것입니다. 그것은 뿌듯한 일이지요.”